

## 통역 교육에서의 난이도와 난이도 요인 - 통역 교육 전문가 조사를 중심으로

최 문 선  
(이화여대)

### 1. 서론

통역 교육의 목적이 학생들로 하여금 통역 전략을 습득함으로써 품질이 좋은 통역 결과물을 산출하도록 하는 것임을 전제할 때 통역 과제의 난이도 및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핵심적인 사안이 된다.

우선 통역 교육에서 사용되는 원천텍스트의 선정 기준 중 하나로서 난이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어떠한 입력물을 사용하는가는 통역사의 능력 습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정혜연 2010: 203). 그러나 통역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던 혹은 그러한 텍스트와 유사한 텍스트를 사용한다는 점 외에는 원천텍스트 선정의 기준과 관련된 연구나 논의가 상당히 부족하다(이향 2011: 178). 따라서 적절한 원천텍스트 선정의 중요성(곽중철, 홍설영 2012)을 감안할 때 텍스트 선정의 원칙을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업에서는 원천텍스트의 난이도

를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대상군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난이도의 텍스트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원천텍스트가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수업에 사용될 원천텍스트를 선정함에 있어 난이도를 기준으로 쉬운 텍스트에서 점진적으로 어려운 텍스트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박혜경 2006; Anderson & Lynch 1988; Seleskovitch & Lederer 1989; Alexeiva 1992; Hönig 2002; Farahzad 2003; Setton 2005). 원천텍스트의 선정이 체계적으로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이행한다면 학생들은 교과과정이 투명하며 올바른 방법론에 기반을 두고 조직되었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므로(Hönig 2002: 46) 학생들의 만족도와 교육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초반부에 학생 수준 대비 너무 어려운 텍스트를 제시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저하시키고 자신감을 무너뜨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최대의 교육 효과를 낼 수 있는 텍스트를 선정해야 한다는 면에서도 난이도 수준의 고려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텍스트를 구할 수 있는 원천이 방대한 상황에서 난이도 분석을 통해 적절한 난이도의 텍스트를 고를 수 있어야 한다(Chall 1996: 4).

시험에 출제되는 원천텍스트의 경우에도 난이도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통역 시험의 신뢰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원천텍스트의 난이도이기 때문이다(Bachman & Palmer 1996; Campbell & Hale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텍스트의 난이도를 객관적, 체계적으로 기술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Hönig 2002: 38). 다양한 언어 전공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일 경우 학과간 시험 난이도가 유사한 수준에서 맞춰질 수 있도록 텍스트 선정의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Sawyer 2004: 159-169). 또한 통역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시험과 같이 많은 대중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시험은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특히 더 중요하다(Angelelli 2009: 19)는 차원에서 난이도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통역의 난이도가 수업과 시험 등 통역 교육의 전 과정에서 사용할 원천텍스트의 선정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면, 그러한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요인을 규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통역 평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통역에서의 평가는 크게 학기말이

나 졸업 시 치러지는 시험의 형태인 총괄 평가(summative assessment), 수업 중의 통역 수행이나 과제물에 대한 교강사의 피드백인 형성 평가(formative assessment), 그리고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통역 수행을 반성적으로 고찰하는 자기 평가(ipsative assessment)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Sawyer 2004: 107), 통역의 난이도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는 이 세 가지 평가 수준에서 공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먼저 총괄 평가인 각종 통역 시험의 경우이다. 앞서 통역 교육에서 난이도 고려의 필요성을 논하면서 시험대상군에 맞는 난이도를 갖춘 원천텍스트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난이도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소들을 확인하는 작업은 개별적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는 통역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형성 평가라는 차원에서도 난이도 요인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수업 환경에서 주어지는 통역 원천텍스트의 다양한 측면 중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면 이는 통역 입력물에 대한 기술 및 분석의 도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교수와 학생이 원천텍스트를 분석하는데 있어 같은 언어를 사용하여 논의할 수 있게 되고 통역의 실패가 발생했을 때 이와 연관된 원천텍스트의 객관적인 난이도 요인이 무엇인지를 기술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논하게 되므로 학생에 대한 피드백의 내용과 방법이 향상될 수 있다. 이러한 피드백은 객관적 기준에 의거한 것이므로 학생들이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예상할 수 있다(Hönig 2002: 46).

마지막으로 학생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기 평가에서도 학생이 수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통역에 나타난 문제점의 원인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이 제공될 수 있다.

본고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통역의 난이도 및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통역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인식 하에 연구자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과제 중 1단계에 해당하는 연구조사를 다룬 것이며, 통역의 입력물 중 원천텍스트 차원에서의 난이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통역의 난이도 및 난이도 요인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연구를 고

찰한 후, 한국어-영어 통역 교육에 사용되는 원천텍스트의 난이도 수준을 가늠하는 주요한 난이도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 2. 통역의 난이도와 난이도 요인

### 2.1 통역의 난이도 - 어려움의 정도

통역을 배우는 학생은 물론이고 실무현장에서 통역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통역사, 혹은 통역 교육을 받지 않은 비전문적 통역인 등 통역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우 다양한 변수가 개입되는 복잡한 인지 활동으로서 통역의 성공적 수행이 적어도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는 통역에 관여하는 변수가 너무나 다양하고 많기 때문이며, 이러한 각 변수가 성공적인 통역에 유리한 조건을 충족시킬 때 비로소 좋은 통역, 질 높은 통역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역의 어려움의 정도를 ‘난이도’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다. 국어사전<sup>1)</sup>에서도 난이도를 “(학습·운동·기술 따위의) 어렵고 쉬운 정도”라고 정의하면서,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점수에 큰 차이가 난다”라는 문장을 용례로 들고 있다. ‘난이도가 높다’라는 말이 그 자체로는 어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난도(難度)가 높다’는 의미, 즉 ‘어려운 정도가 높다’라는 의미로 통용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고에서도 ‘난이도’라 함은 ‘어려움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어떤 과제의 어려움의 정도, 즉 난이도라는 개념은 다시 객관적 난이도와 주관적 난이도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객관적 난이도라 함은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과는 독립적으로 미리 표명되는 어려움의 정도이다. 가장 친근한 예를 스포츠에서 찾을 수 있다. 체조나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구사하는 각각의 기술에는 소위 ‘난이도’가 정해져 있어서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점수에 가중치가 부여된다. 이에 반해 주관적 난이도는 과제를

1) 동아새국어사전 (2000) 서울: 두산동아.

수행하는 주체가 개별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이다. 따라서 과제 수행 주체가 가진 능력이나 개인적인 배경, 혹은 과제 수행 순간의 심적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관적인 요소에 의해 각기 다르게 느끼는 어려움이다.

그렇다면 통역의 난이도도 위에서 말한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객관적 난이도는 주어지는 통역 과제에 대해 비슷한 능력을 지닌 통역사들이 합의할 수 있는 어려움, 그리고 주관적 난이도는 통역사 자신이 과거의 통역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고 자신의 능력 수준에 대비하여 느껴지는 상대적 어려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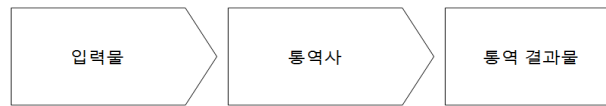
이렇게 난이도를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쥘(Gile 1995)이 언급한 통역 문제 촉발 요인(problem trigger)의 설명과도 일맥상통한다. 쥘은 통역 결과물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요인들을 다양하게 언급하면서 이러한 통역 문제 촉발 요인은 분명 통역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소이기는 하나 이것이 반드시 통역사가 실제로 통역을 할 때 그대로 발현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ibid.: 174). 여기서 쥘이 말하는 통역 문제 촉발 요인을 앞서 구분한 난이도 개념 중 객관적 난이도와 연결 지어 볼 수 있다.

번역학에서도 난이도에 대한 이러한 개념 구분을 발견할 수 있다. 노드(Nord 2005, 2011)는 번역 문제(translation problem)와 번역의 어려움(translation difficulty)을 구분하고 있다. 상술하자면 번역 문제는 “도착어 텍스트를 생산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번역자와 독립적이며 객관적 혹은 최소한 간주관적”인 문제인데 반해 번역의 어려움은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문제로서 번역사의 능력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Nord 2011:11). 따라서 노드가 말하는 ‘번역 문제’는 객관적 난이도, ‘번역의 어려움’은 주관적 난이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두 가지 관점을 전제할 때, 난이도는 어려움을 유발시키는 요인들의 많고 적음, 혹은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결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역의 난이도를 논하기 위해서는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통역 과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역의 ‘난이도 요인’이라 칭하기로 한다.

## 2.2 통역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소 - 난이도 요인

통역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난이도 요인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먼저 통역의 프로세스를 <그림 1>과 같이 단순화할 수 있다.



<그림 1> 통역의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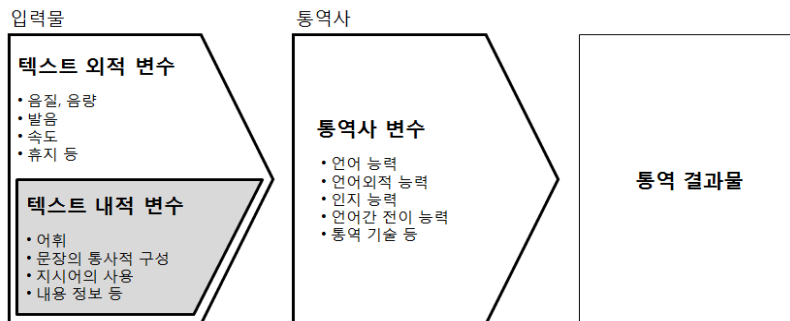
위의 <그림 1>과 같이 통역 과정의 최종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크게 입력물 관련 변수와 통역사 관련 변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통역 과정에는 입력물의 음질, 연사의 발음과 이로 인해 원천언어 입력물이 지니게 되는 음성적 특징, 연사 및 발표 자료에 대한 시각적 접근성, 어조, 원천메세지의 정보 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력물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 (Pöchhacker 2004: 126-131). 이러한 입력물 변수는 다시 텍스트 내적 변수와 텍스트 외적 변수로 나눌 수 있다. 간단히 말해 통역의 입력물 중 청각적인 부분을 제외한, 순수하게 텍스트와 관련된 측면을 텍스트 내적 변수로, 그 외에 입력물의 속도, 말씨, 시각적 보조물의 사용 등을 텍스트 외적 변수로 간주할 수 있다.

다음으로 통역사 변수를 살펴보자. 통역사 변수란 통역사에 귀속될 수 있는 특징으로서 통역의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지칭한다. 이는 주로 언어와 관련되거나 언어 외적인 통역사의 능력에 해당한다. 통역에 있어서 통역사의 언어 지식은 따로 부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통역이 가능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다(Seleskovitch 1994; Kalina 2000). 언어 외적 능력으로 통역사의 배경 지식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전문성이 높아지는 최근의 통역 수요를 감안할 때 통역사의 배경지식은 청취, 이해, 분석, 재표현에 이르는 통역의 전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통역은 멀티태스킹을 요구하는 고도의 인지 활동이므로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 주의력 분배 (Pöchhacker 2004: 166) 등 통역사의 인지 능력도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

한 통역사가 지닌 두 언어 간 전이 능력, 순차 통역을 위한 노트테이킹이나 동시 통역 시 들으면서 말하기와 같은 통역 기술 역시 통역 결과물에 영향을 미친다.

도식화를 위해 통역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크게 입력물 변수와 통역사 변수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나, 실제로 통역 수행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상호 작용을 통해 복잡한 효과를 창출한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통역의 프로세스 모델에 입각하여 보면, 입력물 변수가 통역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통역사 변수에 의해 통역 결과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입력물 변수의 범위가 좁아지거나 넓어질 수 있고 각 입력물 변수의 영향력도 통역사 변수에 의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통역 결과물이라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 중 입력물 변수는 독립변수, 통역사 변수는 조절변수<sup>2)</sup>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통역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통역 결과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크게 텍스트 내적 변수와 텍스트 외적 변수를 포함하는 입력물 변수, 그리고 통역사의 배경 및 능력으로 대변되는 통역사 변수로 구분할 수 있었다. 변수의 성격 면에서 볼 때, 입력물 변수는 통역사 변수에 비해 객관적으로

2) 조절변수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해당하며, 독립변수의 영향력 정도는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Rudestam & Newton 2007: 13).

관찰하고 기술할 수 있는데 반해, 통역사 변수는 주로 통역사의 정신 능력에 해당하므로 매우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며, 이를 관찰하기도, 측정하기도 지극히 어렵다는 특징을 보인다(Bachman 1990: 31-32). 그러므로 앞서 논의한 객관적 난이도는 입력물 변수를 통해 기술될 수 있는 반면, 주관적 난이도는 입력물 변수에 더해 통역사 변수를 함께 고려하여야 설명될 수 있다 하겠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 난이도는 통역사 변수가 고정된 상태에서 입력물 변수의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변동하는 개념으로, 주관적 난이도는 입력물 변수가 고정된 상태에서 통역사 변수의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변동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 3. 난이도 관련 연구

통역 과정에는 원천텍스트에 대한 내용적 이해, 청취, 도착어로의 재표현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며 순차 통역의 경우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 노트테이킹, 동시 통역의 경우 언어 처리의 멀티태스킹 등 통역 기술이 사용된다. 따라서 통역의 난이도를 논하기 위해서는 통역학계의 연구 뿐 아니라 통역의 각 단계와 관련되는 이해, 청취, 번역 분야의 난이도 관련 연구를 폭넓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먼저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읽기 이해(reading comprehension) 분야의 연구를 살펴보면, 난이도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분야로서 읽기용 텍스트의 독이성 공식(readability formula)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있다. 1920년대 초반부터 시작하여 최근까지 약 200여개에 달하는 다양한 독이성 공식이 개발되어 왔다(DuBay 2004: 2). 독서추천목록의 작성이나 교과서 수록 텍스트의 선정을 비롯하여 독이성 공식의 적용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최인숙 2005: 174). 독이성 공식은 어휘나 문장 길이와 같이 텍스트의 어휘적, 통사적 측면을 계량화하여 텍스트의 읽기 난이도를 산출하는 접근방식이다(Green et al. 2010: 193). 어휘 및 문장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읽기 이해에 있어 어휘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문장의 통사 구조가 텍스트 읽기의 난이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확정적 연구 결과를 찾기 어렵다(Alderson 2000: 35). 텍스트 전반의 차원에서는 추상적 내용, 주제, 정보량, 명제 밀도 등이 읽기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있다(Alderson 2000: 69).

청취 관련 연구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버크(Buck 2001)의 저서에서는 청취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텍스트 상의 특징과 과제 상의 특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텍스트 상의 특징은 다른 분야의 연구에서 드러나는 바와 대동소이한 반면, 과제 상의 특징으로 제시하는 부분은 통역의 프로세싱 차원에서 겪는 어려움과 유사하거나 상반된 점이 모두 발견된다. 처리해야 하는 정보량이 많을수록, 핵심주제에서 벗어난 세부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수록, 청취 후 과제 수행과의 시간차가 길어질수록 어려워진다는 점은 통역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들은 내용을 있는 그대로 똑같이 회상하는 것이 요지를 전달하는 것보다 쉽다는 진술은 통역과 일반적인 청취 간에 요구 사항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Buck 2001: 149-153 참조). 앤더슨과 린치(Anderson & Lynch 1988)는 텍스트 속에서 사건이 제시되는 순서, 주제의 친숙성, 정보의 명시성, 입력물의 유형을 청취의 난이도 요인으로 보고 있다(ibid.: 47-56). 특히 묘사, 지시 등 정적인 텍스트, 스토리텔링 등 동적인 텍스트에서 주장을 담은 추상적인 텍스트에 이르는 입력물의 유형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진다는 브라운과 윌(Brown & Yule 1983)의 연구를 인용하고 있는데(Anderson & Lynch 1988: 55), 이는 텍스트 유형이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번역학 쪽에서는 다양한 난이도 요인에 대해 체계적인 구분을 시도한 연구가 발견된다. 라이스(Reiss 1974)는 번역 과제의 어려움이 번역 상황 하에 놓인 원천텍스트의 구체적인 특징으로 인해 유발된다고 보고 번역의 어려움을 크게 원천텍스트의 언어적 측면, 내용적 측면, 텍스트 형식이나 포맷과 같은 기술적 측면의 세 범주로 구분하였다(Nord 2005: 165-166 재인용). 빌스(Wilss 1982)는 원천어 텍스트와 목표어 텍스트 간에 어휘적 혹은 통사적 일대일 대응이 불가능할 때 번역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보고, 보다 세부적으로 번역의 어려움을 분류하였다(Nord 2005: 166 재인용).

노드는 번역 교육을 위한 텍스트 선정의 기준을 논하면서 번역 문제와 번역의 어려움을 구별하여 설명하였다. 번역 문제는 번역사의 능력 및 기술적인 작업 조건과 무관하게 객관적 혹은 간주관적으로 번역에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로서, 화용적 번역 문제, 관습적 번역 문제, 언어적 번

역 문제, 특정 텍스트에 나타나는 번역 문제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되었다. 반면 번역의 어려움이란 번역사의 주관적 능력과 작업 조건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으로서, 여러 조건에 따라 번역 어려움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Nord 2005: 167).

번역 연구 중에서도 번역의 난이도 요인을 어휘 차원에서 다룬 연구들이 발견된다. 한영 번역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은 전문 용어 및 목표어 텍스트 표현을 가장 주요한 난이도 요인으로 꼽았다(이미경 2012). 또한 한일 통역, 번역을 가르치는 교강사들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난이도 요인으로서 번역, 순차 통역, 동시 통역을 막론하고 고유어의 처리라고 답했다(김한식 2002). 호주에서 석사과정 번역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가장 주요한 난이도 요인을 밝히기 위해 실시한 번역 실험에서는 의미 해석과 어휘 선택 뿐 아니라 모호한 통사 구조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복합 명사구(complex NP)가 번역에 가장 큰 어려움을 야기하는 항목으로 나타났다(Hale & Campbell 2002).

번역의 텍스트 유형(text type)에 따른 난이도를 논한 하티무와 메이슨(Hatim & Mason 1997)에 따르면 신문기사 류의 텍스트에 비해 의견을 주장하는 논증형 텍스트는 번역하기 더 까다로운데, 그 이유는 후자가 “보다 복잡하고 의미를 협상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데다, 텍스처(texture)가 불투명하고 수사적 효과를 내기 위한 방식으로 조작되어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Hatim & Mason 1997: 181). 이상빈(2010)은 영한 번역수업에서 사용할 원천텍스트를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정보적(informative) 텍스트에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표현적(expressive) 텍스트의 순으로 배열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학생들은 이러한 순서가 난이도의 점진적인 증가와 일치한다고 느낌으로써 결과적으로 텍스트 유형을 중요한 난이도 요인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역과 관련된 난이도를 논한 최초의 문헌으로 보이는 트리스만(Treisman 1965)의 연구는 동시 통역과 새도잉(shadowing)을 비교한 심리학적 실험에서 두 과제 모두 텍스트의 정보량(information rate)이 수행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후 통역학계의 많은 학자들이 여러 차원에서 통역에 어려움을 유발시키는 난이도 요인에 대해 다양한 주장을 내 놓았다.

통역 시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어휘 차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단 한 번 밖에 제시되지 않고 맥락에 의한 유추가 거의 불가능한 고유명사나 숫자(Gile 1984; Setton 2005), 동족어(Shlesinger 2000), 비표준적이거나 문화특수적인 어휘의 사용(Sabatini 2000), 재미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창의적인 표현(Viaggio 1996)이 논의되었다(Pöschhacker 2004: 131 재인용). 또한 입력물의 속도와 요구되는 배경지식의 양을 통제된 통역 실험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대응어가 즉각적으로 떠오르지 않는다는 문제, 즉 즉각적인 언어변환 문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원종화 2010). 앞서 언급한 다양한 요인들은 원천 텍스트 상의 어휘적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대응어 문제는 어휘 차원의 어려움을 통역사가 경험하는 프로세싱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장의 통사적 구성 및 문장 길이 등 문장 차원에서 통역의 난이도 요인을 논한 연구이다. 일반적으로 문장의 통사적 구성이 복잡하고 길이가 길수록 이해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으나(Green et al. 2010: 194) 통역학 분야에서는 상반된 연구 결과가 함께 발견된다. 텍스트의 통사적 복잡성이 통역의 정확성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위해 실시한 동시 통역 실험(Tommola & Helevä 1998)에서 같은 내용의 텍스트를 단순 구조와 복잡한 구조의 2개 버전으로 작성한 뒤 각각의 버전에 대한 통역 결과물의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 단순 구조를 원문으로 한 통역 결과물의 정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영어-불어 동시 통역 실험(Dillinger 1994)에서는 문장의 통사적 복잡성이 통역 결과물의 품질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장 구조라는 통사적 측면에서 중국어-영어, 독어-영어 동시 통역 결과물을 원문 텍스트와 비교한 연구(Setton 1999) 결과, 통역사들이 원문에 없었던 새로운 문장 구조를 삽입하거나 원문에서 2개 이상의 절로 나타난 문장을 하나의 절로 통합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동시 통역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Setton 1999: 168), 이 역시 통사적 구조가 반드시 통역의 어려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역시 문장 차원에서의 논의이기는 하나 보다 인지적인 접근방식을 취한 연구(Alexieva 1992)에서는 문장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어가 속한 도메인(domain)을 기준으로 동일한 도메인에 속하는 단어들로 구성된 문장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도메인에 속한 단어들로 구성된 문장인지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서로 다른 도메인에 속한 단어들로 구성된 문장의 경우 단어 간의 관

계를 파악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후속 내용에 대한 예측도 더 어려워지는데 반해, 단일 도메인에 속한 단어들로 구성된 문장은 문장 내 단어 수가 많을지라도 통역하기 더 쉽다는 것이다 (Alexieva 1992: 224-225).

셀레스코비치와 르데르(Seleskovitch & Lederer 1989: 53)는 통역 교육에서 사용할 원천텍스트를 논하면서 주제에 대한 친숙도, 연설문 문체의 정교함, 서사(narrative), 주장(argumentative), 묘사(descriptive), 감정(emotional) 등 연설문의 성격을 기준으로 원천텍스트의 난이도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설문의 성격인 서사, 주장, 묘사, 감정 등을 앞서 번역 분야의 관련 연구에서 언급된 텍스트의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읽기 이해, 청취, 번역, 통역 분야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모두 어느 정도 통역사의 통역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통역학의 일부 연구에서는 실제로 나타나는 통역 결과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난이도 요인을 선별하고 정량화하여 이를 중심으로 통역 원천텍스트의 난이도 수준을 산정하고자 한 시도들이 발견된다. 이들 연구는 정량화된 방식으로 통역 원천텍스트의 난이도를 측정 후 통역 결과물 품질과 비교함으로써 통역의 성공적 수행 정도에 대한 예측력 혹은 상관도가 높은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난이도의 정량화 관련 연구들은 통역 입력물의 다양한 변수 중에서 실제로 통역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난이도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거나 그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세튼(Setton 2005)의 동시 통역 실험 연구에서는 원천텍스트를 일정 단위로 분절한 후 각 분절단위 별로 어순과 정보 흐름이라는 두 개의 난이도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원천텍스트별 난이도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 점수를 통역 결과물과 비교하여 난이도 산출 방식의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통역 입력물의 난이도 점수와 통역 수행 간의 상관관계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입력물과 통역 결과물을 비교하는데 사용한 방법은 주목할 만하다. 통역의 경우 원천텍스트에서 난이도 요인이라고 예상되는 항목의 위치와 통역 결과물에서 통역의 실패가 나타나는 지점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동시 통역에서는 청성시차(ear-voice span)로 인해 원천텍스트의 어려움이 수초간 혹은 더 긴 시간동안 나타나지 않고 지연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Gile 1995).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세튼의 연구에서는 난이도 요인이 발견되는 원천텍스트의 분절단위에 대해 통역 결과물에서는 해당 부분을 포함하여 그 뒤로 이어지는 두 개의 분절단위까지로 비교의 범위를 확대하여 난이도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텍스트 읽기나 청취, 혹은 번역에서 난이도 요인이 바로 해당 부분에 대한 이해나 번역의 실패로 나타나는 것과 대조적인 통역의 실재를 반영한 바람직한 연구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리우와 치우(Liu & Chiu 2009)는 정량 지표와 전문가 판단이라는 정성 지표를 통해 영어-중국어 순차통역 텍스트의 난이도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먼저 정량 지표에 의거하여 텍스트의 난이도를 산정한 후, 통역학과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로 통역을 수행하게 하여 통역 결과물의 정확도와 비교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지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정보 밀도와 문장 길이가 통역 수행에서의 난이도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나타났다. 실제로 다른 많은 연구(Barik 1973, 1975; Dillinger 1994; Lee 1999a, 1999b; Setton 2005)에서도 정보 밀도가 통역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자주 언급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난이도의 정량화를 시도한 또 다른 통역 연구에서 알렉시바(Alexieva 1999)는 통역의 원천텍스트 난이도 계산 공식을 개발하였다. 청취도 계수(listenability coefficient)라 명명된 이 공식은 텍스트의 함축성(implicitness)을 측정하는 공식으로서, 원천텍스트 상에 포함된 명시적 명제 대 함축적 명제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 소개한 두 연구와는 달리 실제 통역 결과물과의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아 청취도 계수의 난이도 예측성이 실증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텍스트의 함축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명제의 수를 통해 정량화한 시도는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 통역 및 인접 분야의 난이도 관련 연구를 고찰하였다. 난이도 요인의 측면에서 볼 때 통역 및 통역 관련 분야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난이도 요인은 크게 어휘, 문장의 길이 및 통사적 구조, 주제 등의 내용 정보, 정보량 혹은 정보 밀도, 텍스트 혹은 입력물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매우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는 독해, 청취, 번역, 통역 등 관련 분야의

연구들이 모두 주어지는 입력물에 대한 이해를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주로 통역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선별하여 난이도를 정량화하여 실제 통역 수행과 비교한 연구(Alexieva 1999; Setton 2005; Liu & Chiu 2009)에서는 다양한 요인 중 특히 어순, 정보 흐름, 정보 밀도, 문장 길이, 명제의 함축성을 통역의 어려움과 높은 연관성을 지니는 요인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연구는 다양한 요인 중 특히 통역과 관련된 난이도 요인을 추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난이도 개념은 앞서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통역 교육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통역 교육의 맥락에서 원천텍스트의 난이도를 살펴보기 위해 통역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조사를 실시하였다.

#### 4. 통역 교육 전문가 조사

##### 4.1 연구 개요

선행 연구 검토 결과 통역 관련 분야에서 매우 다양하면서도 중복적인 난이도 요인을 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역 교육’이라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교육 주체이자 원천텍스트 선정의 주체인 교강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난이도에 작용하는 다양한 요인 중 통역 교육에서 학생들이 통역하게 되는 텍스트의 난이도를 주도하는 요인이 있는지, 있다면 그 요인을 통해 텍스트의 전체 난이도 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를 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통역 교육에 사용되는 원천텍스트의 난이도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통역 교육용 원천텍스트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은 무엇인가(연구 문제 1), 둘째, 원천텍스트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을 통해 주어진 원천텍스트의 전체 난이도를 예측할 수 있는가(연구 문제 2)라는 질문이다.

연구의 범위로써 통역 교육과정의 수준은 통역대학원의 석사과정, 통역언어는 한국어-영어(양방향), 통역 모드는 순차 통역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사의 참여자인 통역 교육 전문가로는 통역 교육과정에서 원천텍스트의 선정 및 난이도 평가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고 나름의 난이도 판단 기준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통역대학원 교강사 집단을 선정하였다. 이에 서울의 통역대학원에서 강의하는 통역 교강사 13인이 본 조사에 참여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교강사들이 난이도를 판단하기 위해 검토한 텍스트는 지난 10년간 서울의 한 통역대학원이 시행한 주요 시험에 출제되었던 순차 통역 원천텍스트 중 일부로서, 한국어 텍스트 5개, 영어 텍스트 5개를 선정, 총 10개의 텍스트를 참여자들에게 제시하였다. 시험 텍스트의 경우 시험 대상인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되며, 여러 명의 교강사가 해당 텍스트의 난이도를 비롯한 제반 측면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여야 실제 시험의 원천텍스트로 사용되는 것이 관례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험 텍스트를 본 연구의 원천텍스트로 선정하였다. 본 조사에 사용된 텍스트는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조사에 사용된 텍스트

번호	제목*	출제 시험
K1	위안화	2012년 인증시험
K2	헬스케어	2011년 종합시험**
K3	아시아적 가치	2010년 종합시험
K4	자동차세	2009년 인증시험***
K5	동북아 시민 포럼	2003년 종합시험
E1	Aquaculture	2009년 인증시험
E2	China	2003년 인증시험
E3	North Korea	2002년 인증시험
E4	Sustainability	2002년 종합시험
E5	Bush	2001년 인증시험

\* 원래 ST 상에는 제목이 없었으나 구분의 편의상 연구자가 텍스트 내용을 중심으로 제목을 부여함  
 \*\* 텍스트가 사용된 대학원에서 2년의 교육과정을 마친 모든 학생이 학위를 받기 위해 치르는 졸업시험의 명칭.  
 \*\*\* 텍스트가 사용된 대학원 졸업자 중 국제회의통역사 자격을 인증받기 위해 응시하는 시험의 약칭

## 4.2 연구 방법

상기한 두 가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성적 자료와 정량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우선 정성적 자료로서 조사 참여자의 난이도에 대한 총평이 수집되었다. 각각의 참여자는 순차 통역의 상황임을 염두에 두고 학생이 해당 텍스트를 순차 통역할 때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에 밑줄 등으로 표시한 후 그 이유를 기술<sup>3)</sup>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 텍스트별로 약 한 단락 정도의 난이도 총평을 작성하였다.

난이도 요인과 관련된 기술을 할 때 참여자들의 편의를 지원하고 추후 연구 자료의 분류 시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잠재적 난이도 요인을 ‘난이도 요인 예비항목’이라는 목록으로 작성하여 텍스트와 함께 배포하였다(부록 참조). 본 예비항목 목록은 앞서 소개한 다양한 난이도 관련 연구의 내용을 종합하고, 비영어 언어 전공 교강사 2인에 대한 반구조화된 심층 면접을 통해 나타난 난이도 요인을 추가하여 중복적 요소를 통합하고 통역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한영 통역과 교강사 2인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였다. 그 결과 주제, 어휘, 문장, 논리, 정보 밀도, 도차어 표현 등 총 6개 범주에 속하는 17개 세부 요인으로 구성하였고, 각 요인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표의 형태로 참여자에게 제공하였다. 참여자는 본인이 기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히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이 떠오르지 않을 때 본 목록을 참고하였으며, 연구자는 본 목록에 포함된 각 항목별 설명 내용에 의거하여 참여자의 총평 내용을 분류하였다.

3) 통역 교육 전문가들이 원천텍스트를 읽고 검토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관행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교강사가 수업 및 시험의 원천텍스트를 선정하거나 난이도 등을 포함한 제 측면을 검토할 때 일반적으로 읽어서 그 적절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는 원천텍스트 후보를 여러 개 검토할 때 매번 일일이 직접 통역해보는 것이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년간의 통역 실무 및 교육 경험을 지닌 전문가들의 경우 읽기를 통해서도 원천텍스트를 통역할 때 학생이 경험할 어려움을 매우 정확히 예상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는 1학년과 2학년이 겪을 어려움을 구분하여 기술하거나 실제 프로세싱 순간에 경험할 어려움까지 언급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각 참여자가 텍스트 10개를 동시에 비교, 검토하는 과제의 피로도를 감안할 때 읽고 평가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량적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서 참여자로 하여금 각 텍스트의 난이도 총점을 매기도록 하였고, 이에 더해 상기한 6개 범주별로 세부적인 난이도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난이도 점수는 총점과 세부 점수 모두 10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자료의 제시 방법은 전적으로 실제 연필과 종이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전자적인 방법의 경우 여러 가지 편의성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참여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표시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이 형태로 텍스트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4.3 분석 방법

먼저 연구 문제 1과 관련하여 통역 교육용 원천텍스트의 난이도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정성적 자료로 수집된 참여자의 난이도 총평을 분석하였다. 13인의 참여자가 10개의 텍스트에 대해 총평하여 모두 130개의 난이도 총평이 수집되었다. 참여자들은 학생의 입장에서 각 텍스트를 순차 통역하는 상황을 연상하였고, 그 결과 학생들이 느낄 난이도를 예상하여 자유롭게 기술하였다. 총평의 내용 중 난이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진술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난이도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한 부분에 등장한 표현을 취합하여 분류하였다. 일례로 <그림 3>은 한 참여자의 난이도 총평 내용이다.

“원문에 어려운 개념도 포함하고 있고, 설사 아는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라도 명사화된 표현 (ex: 무역결제 통화)을 많이  
써서 노트테이킹도 어렵고 영어로 말하기도 힘들 수 있음.  
논리 전개도 ②번에서 방향이 달라져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완벽하게 못하고 그냥 따라갈 수 있는 스타일인 듯”.

〈그림 3〉 난이도 총평 예시

위의 총평에서는 ‘개념’, ‘명사화된 표현’, ‘노트테이킹’, ‘도착어 표현’, ‘논리 전개’가 난이도 요인으로 언급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참

여자의 총평에서 난이도 요인으로 언급된 사항을 추출, 분류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문제 2와 관련하여 정량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앞 단계의 분석 결과 규명된 주요한 난이도 요인이 속한 범주의 세부 난이도 점수와 각 참여자가 텍스트별로 부여한 난이도 총점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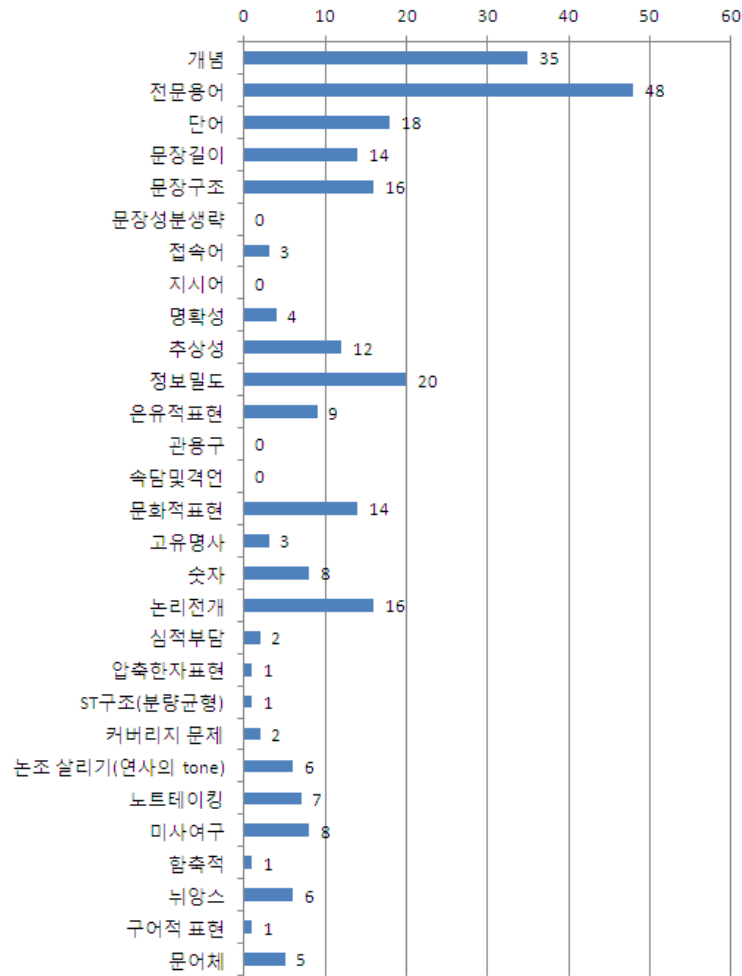
#### 4.4 연구 결과

##### 4.4.1 통역 교육용 원천텍스트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

먼저 통역 교육용 원천텍스트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총평의 내용을 분석하여 난이도 요인으로 판단되는 항목을 추출한 후 각 항목의 언급 횟수에 대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텍스트의 주제와 관련된 난이도 요인인 ‘개념’(35회)과 ‘전문용어’(48회)가 압도적으로 많이 언급되었다. 다음으로 ‘정보 밀도’(20회), ‘단어’(18회), ‘논리 전개’(16회), ‘문장 구조’(16회), ‘문장 길이’(14회), ‘문화적 표현’(14회)이 뒤를 이었다. 반면 ‘문장 성분 생략’, ‘지시어’, ‘관용구’, ‘속담 및 격언’의 4개 항목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연구자가 제공한 난이도 예비항목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으로서 ‘미시여구’, ‘문어체’, ‘논조 살리기’, ‘압축 한자 표현’ 등 총 12개 요인이 추가적으로 언급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트테이킹’, ‘커버리지(coverage)’, ‘심적 부담’은 앞서 <그림 2>의 구분에 따르면 통역사 변수로 분류될 수 있는 항목들로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텍스트 차원의 난이도 요인으로는 보기 힘들다. ‘노트테이킹’의 경우 통역의 프로세싱 상에 부담을 추가하여 통역사에게 멀티태스킹을 요구하는 요인이며, ‘커버리지’는 난이도 요인이라기보다는 난이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물의 현상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평소 텍스트를 검토, 평가하면서 염두에 두던 요소들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순차 통역의 원천텍스트라는 전체 하에 검토된 텍스트들이었으므로 노트테이킹에 어느 정도 부담이 발생할지에 대해 참여자들이 상당히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된다.



〈그림 4〉 총평 상에 나타난 난이도 요인 및 언급 횟수

커버리지의 경우 텍스트 K3에 대해서만 2회 언급되었고, 커버리지를 언급한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정보 밀도를 함께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정보 밀도라는 텍스트적 요소가 커버리지라는 통역 결과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난이도 요인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

로 심적 부담은 텍스트 K1에서만 2회 언급되었다. K1의 난이도 요인 분포가 ‘주제’ 쪽으로 편중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제 면의 어려움으로 인해 심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즉 심적 부담은 주제의 어려움, 전문성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주제라는 텍스트적 특징이 난이도 요인으로서 유효하다는 점을 뒷받침해 준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심적 부담은 통역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없으나 본 연구의 관심 대상인 텍스트보다는 통역사와 관련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총 10개 원천텍스트의 난이도 요인에 대한 총평을 종합한 결과 ‘주제’가 가장 주요한 난이도 요인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전체적인 난이도 요인 빈도 분석에 덧붙여 각각의 원천텍스트별로 언급된 난이도 요인을 분석하였다. 참여자 2인 이상이 언급한 항목만을 모아 분류한 결과 [표 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2] 텍스트별 난이도 요인

텍스트 번호	총평 언급항목(2회 이상)	주도적 요인
K1	주제(17), 정보밀도(3), 숫자(3), 논리(3), 문장(2), 심적부담(2)	주제
K2	주제(10)	주제
K3	논리(7), 문장(5), 어휘(4), 정보 밀도(3), 도착어표현(3)	(복합적)
K4	주제(15), 논리(5), 정보밀도(4), 도착어표현(4), 논조살리기(4)	주제
K5	도착어표현(16), 정보밀도(2)	도착어 표현
E1	주제(11), 어휘(4), 논리(3)	주제
E2	문장(11), 주제(8), 논리(4)	문장, 주제
E3	문장(11), 주제(6), 도착어표현(6), 어휘(4), 노트테이킹(2)	문장 + 주제, 도착어 표현
E4	주제(10), 논리(4), 문장(3), 정보밀도(3), 숫자(3), 어휘(2)	주제
E5	주제(6), 정보밀도(3), 뉘앙스(3), 문장(2), 도착어표현(2), 논리전개(2), 논조살리기(2)	(복합적)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이 된 원천텍스트들을 크게 3개 군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도적 요인이 발견된 텍스트 군이다. [표2]에서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그러한 텍스트로서 텍스트 K1 K2, K4, K5, E1, E4의 총 6개이다. 도착어 표현의 어려움이 난이도를 결정한다고 평가된 K5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주제가 해당 텍스트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장이 상당히 주도적인 요인으로 꼽힌 텍스트 군이다. 이 두 번째 분류에는 한국어 텍스트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영어 텍스트 중 E3과 E4가 문장과 관련된 측면으로 인해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흥미롭게도 양 텍스트 모두 ‘주제’가 난이도 요인으로서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되었다. 셋째, 주도적인 난이도 요인이 나타나지 않은 텍스트 군이다. 텍스트 K3와 K5가 여기에 속한다. 이 두 텍스트의 난이도 요인으로는 예비항목 상의 거의 모든 항목이 고르게 언급되었다.

전체 빈도 분석과 원천텍스트별 언급 횟수를 분석한 결과를 함께 고려할 때 주목되는 점은 통역 교육용 원천텍스트의 난이도 요인으로서 ‘주제’의 의미이다. ‘주제’는 전체 난이도 요인 언급횟수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검토 대상 텍스트 절반에서 주도적인 난이도 요인으로 언급되었으며 나머지 텍스트 상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게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제’라는 난이도 요인이 언급된 경우에는 다른 난이도 요인들이 거의 감안되지 않았다. 이는 ‘주제’가 일종의 관문적 성격의 난이도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즉 통역 교육에서는 원천텍스트를 선정할 때 일단 주제 면에서 학생들에게 적합한 난이도가 설정되고 나서야 그 다음 단계로서 텍스트의 구체적인 요소들, 즉 어휘, 문장, 논리, 정보 밀도, 도착어 표현 등에 대한 난이도를 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4.4.2 세부 난이도 점수와 총점 간의 상관관계

앞서 난이도 요인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 ‘주제’가 본 연구에서 가장 주요한 난이도 요인으로 드러났다. 난이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을 통해 원천텍스트의 전체 난이도를 예측할 수 있는지 보고자 했던 연구 문제 2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각 텍스트의 ‘주제’ 난이도 점수와 텍스트 전체의 난이도 총점 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각 텍스트의 ‘주제’ 면에서 참여자가 부여한 세부 난이도 점수와 해당 텍스트의 전체 난이도를 평가한 난이도 총점 간의 상관관계를 텍스트 별로 산출한 결과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텍스트별 ‘주제’ 난이도 점수 및 난이도 총점 간의 상관도

텍스트	K1	K2	K3	K4	K5	E1	E2	E3	E4	E5
상관계수 (총점:주제)	0.72	0.65	0.91	0.64	0.74	0.97	0.81	0.83	0.87	0.92

수치상으로 보이는 바와 같이 모든 텍스트 상에서 ‘주제’ 난이도와 텍스트 전체 난이도는 높은 상관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상관관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p < 0.01$ ).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통역 교육용 원천텍스트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드러난 ‘주제’는 원천텍스트의 전체 난이도에 대해 강력한 예측력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역 방향별로 볼 때 전반적으로 한국어 텍스트 보다는 영어 텍스트에서 상관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한국어 원천텍스트의 난이도를 판단할 때에는 주제를 제외한 다른 난이도 요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바꾸어 말하면 영어 텍스트의 경우 주제를 제외한 다른 난이도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전체 난이도에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역 교육이라는 맥락에서 교강사들이 원천텍스트의 난이도를 판단할 때 통역 방향에 따라 다른 난이도 요인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 5. 결론 및 향후 과제

난이도와 난이도 요인이라는 개념은 통역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효과적인 통역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점진적으로 능력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도록 난이도를 점증시키는 방향으로 원천텍스트를 선정할 필요가 있

으며, 통역 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난이도를 결정짓는 난이도 요인의 규명이 요구된다. 또한 통역 평가로서 통역 시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난이도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측면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통역 교육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난이도 요인을 탐색하고자 통역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제 한국어-영어 순차 통역 교육 과정에 사용되었던 텍스트를 제시하고 통역 교육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용 원천텍스트의 난이도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요인이 텍스트 전반적 난이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예측력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첫째, 통역 교육 전문가들은 ‘주제’를 가장 중요한 난이도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둘째, 개별 텍스트별 ‘주제’ 측면의 난이도 점수를 해당 텍스트의 전체 난이도 점수와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높은 상관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통역 교육용 원천텍스트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드러난 ‘주제’는 원천텍스트의 전체 난이도에 대한 매우 높은 예측력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통역 방향에 따라 상관도 수준에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통역 방향 별로 교강사들이 주목하는 난이도 요인이 다를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역을 가르치는 교강사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주제’가 압도적으로 강하게 부각되었다. 이는 다년간의 통역 교수 과정에서 다양한 원천텍스트를 선정하여 학생들을 지도해 본 전문가들의 실제 경험에 기반한 결과로서, 통역 교육용 원천텍스트의 난이도 요인에 대한 교강사의 시각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주제’를 기준으로 통역 교육용 원천텍스트의 난이도를 평가하여 이를 교육 현장에서의 텍스트 선정에 적용해 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제’는 ‘개념’과 ‘전문용어’로 판단한다고 제시한 바(부록 참조), 주어진 텍스트 이해를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배경지식이 요구되는 개념 및 전문용어의 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주어진 텍스트의 주제 난이도를 평가하여 학년별, 시험별로 적절한 난이도의 텍스트를 선정하는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념 및 전문용어의 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주제 난이도를 보는 것은 아무런 기준 없이 전체적인 인상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에 비해 보다 높은 객관성

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 여겨진다. 다만 본 결과만을 기초로 통역 교육용 원천텍스트의 난이도를 확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위의 지침은 연구 결과를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제언의 차원으로만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주요한 난이도 요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교강사의 시각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통역 교육용 원천텍스트의 난이도 요인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보다 세밀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난이도 요인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향후 ‘주제’라는 난이도 요인을 일정하게 고정된 상태에서 다양한 특징을 가진 텍스트를 제시한다면 본 연구에서 가려졌을지도 모르는 난이도 요인들이 표면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문헌

- 곽중철, 홍설영 (2012) 「통번역대학원의 통역 수업 모형 - 협력학습 중심의 영한 순차통역 강의 연구」, 『통번역학연구』 16(2): 85-114.
- 김한식 (2002) 「한일 통역 및 번역 강의에 대한 연구조사 - 통역번역대학원 재학생 및 교강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통역번역연구소 논문집』 6: 21-51.
- 박혜경 (2006) 「국내 통역대학원 교육방법론의 재고 - 1학기 순차통역 중심으로」,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8(2): 61-80.
- 원종화 (2010) 「한-영 동시통역 시 정보 처리의 방향성 연구 - 은유 처리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미경 (2012) 「번역교육을 위한 텍스트 난이도 평가 기준에 대한 소고」, 『번역학연구』 13(2): 139-164.
- 이상빈 (2010) 「텍스트 유형론에 기반을 둔 학부번역수업의 운영 사례연구: K.Reiss의 유형론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1(3): 167-196.
- 이향 (2011) 「학부에서의 실용번역 교육에 관한 고찰: 프랑스어문학과에서의



- 실용번역 교육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3(2): 167-86.
- 정혜연 (2010) 「‘신’연구분야로서의 통번역습득론, 『번역학연구』 11(1): 191- 212.
- 최인숙 (2005). 「텍스트의 언어적 난이도 측정 공식 비교 연구 — 초중고 교과서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 22(4): 173-95.
- Alderson, J. Charles (2000) *Assessing Reading*. Cambridge: Cambridge U.
- Alexeiva, Bistra (1992) ‘The Optimum Text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a Cognitive Approach to Interpreter Training’, In Cay Dollerup & Anne Loddegaard (ed.), *Teaching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Training, Talent and Experience*,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221-30.
- . (1999) ‘Understanding the Source Language Text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The Interpreters’ Newsletter* 9: 45-99.
- Anderson, Anne & Lynch, Tony (1988) *Listening*. Oxford: Oxford UP.
- Angelelli, Claudia V. (2009) ‘Using a Rubric to Assess Translation Ability: Defining the Construct’, In Claudia V. Angelelli & Holly E. Jacobson (ed.), *Testing and Assessment i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a Call for Dialogue Between Research and Practice*,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13-47.
- Bachman, Lyle & Palmer, Adrian S. (1996) *Language Testing in Practice: Designing and Developing Useful Language Tests*. Oxford: Oxford UP.
- Barik, Henry C. (1973) ‘Simultaneous Interpretation: Temporal and Quantitative Data’, *Language and Speech* 16(3): 237-70.
- . (1975) ‘Simultaneous Interpretation: Qualitative and Linguistic Data’, *Language and Speech* 18(3): 272-97.
- Brown, Gillian and Yule, George (1983) *Teaching the Spoken Language: an Approach Based on the Analysis of Conversational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P.
- Buck, Gary (2001) *Assessing Listening*. Cambridge: Cambridge U.
- Campbell, Stuart & Hale, Sandra (2003) ‘Translation & Interpreting Assessment in the Context of Educational Measurement’, In G. Anderman & M. Rogers (ed.), *Translation Today: Trends and Perspectives*,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205-24.

- Chall, Jeanne S. (1996) *Qualitative Assessment of Text Difficulty: a Practical Guide for Teachers and Writers*. Cambridge: Brookline Books.
- Dillinger, Mike (1994) 'Comprehension during Interpreting: What Do Interpreters Know That Bilinguals Don't?', In S. Lambert & B. Moser-Mercer (ed.), *Bridging the Gap: Empirical Research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pp. 155-189. Amsterdam: John Benjamins.
- DuBay, William H. (2004) *The Principles of Readability*. California: Impact Information.
- Farahzad, Farzaneh (2003) 'Sequencing Texts on the Basis of Difficulty in a Translation Programme', *Translation Studies* 1(1): 31-44.
- Gile, Daniel (1995)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Green, Anthony, Ünalı, Aylin & Weir, Cyril (2010) 'Empiricism Versus Connoisseurship: Establishing the Appropriacy of Texts in Test of Academic Reading', *Language Testing* 27(2): 191-211.
- Hale, Sandra & Campbell, Stuart (2002) 'The Interaction Between Text Difficulty and Translation Accuracy', *Babel* 48(1): 14-33.
- Hatim, Basil & Mason, Ian (1997) *The Translator as Communicator*. London: Longman.
- Hönig, Hans G. (2002) 'Piece of Cake - or Hard to Take? Objective Grades of Difficulty of Speeches Used in Interpreting Training', EMCI Workshop Proceedings Vol. 1.
- Kalina, Sylvia (2000) 'Interpreting Competences as a Basis and a Goal for Teaching', *The Interpreters' Newsletter* 10: 3-32.
- Lee, Tae-Hyung (1999a) 'Speech Proportion and Accuracy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from English into Korean', *Meta* 44(2): 260-67.
- . (1999b) 'Simultaneous Listening and Speaking in English into Korea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Meta* 44(4): 560-72.
- Liu, Minhua & Chiu, Yu-Hsien (2009) "Assessing Source Material Difficulty

- for Consecutive Interpreting: Quantifiable Measures and Holistic Judgment”, *Interpreting* 11(2): 244-66.
- Nord, Christiane (2005) *Text Analysis in Translation: Theory, Methodology, and Didactic Application of a Model for Translation-oriented Text Analysis*. Amsterdam/New York: Rodopi.
- . (2011) ‘From the “Protective Workshop” to Professional Reality: Grading the Difficulty of Translation Tasks’, *T&I Review* 1: 9-33.
- Pöchhacker, Franz (2004) *Introducing Interpreting Studies*. London: Routledge.
- Rudestam, Kjell Erik & Newton, Rae R. (2007) *Surviving Your Dissertation: a Comprehensive Guide to Content and Process*. Los Angeles: Sage.
- Sawyer, David (2004) *Fundamental Aspects of Interpreter Education: Curriculum and Assessment*. Amsterdam: John Benjamins.
- Seleskovitch, Danica (1994) *Interpreting for International Conferences: Problems of Language and Communication*. Washington, D.C.: Pen and Booth.
- Seleskovitch, Danica. & Lederer, Marianne (1989) *A Systematic Approach to Teaching Interpretation*. Luxemburg: The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Setton, Robin (1999) *Simultaneous Interpretation: a Cognitive-Pragmatic Analysis*. Amsterdam: John Benjamins.
- . (2005) ‘Pointing to Contexts: A Relevance-theoretic Approach to Assessing Quality and Difficulty in Interpreting’, In Helle V. Dam, Jan Engberg & Heidrun Gerzymisch-Arbogast (ed.), *Knowledge Systems and Translation*, pp.275-312. Berlin/New York: M. de Gruyter.
- Tommola, Jorma & Helevä, Marketta (1998) ‘Language Direction and Source Text Difficulty: Effects on Trainee Performance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In L. Bowker, M. Cronin, D. Kenny & J. Pearson (ed.), *Unity in Diversity? Current Trends in Translation Studies*,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177-86.
- Triesman, Anne M. (1965) “Translating and Repeating Back a Foreign and a Native Language”,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56: 369-79.

## 〈부록〉 통역 원천텍스트의 난이도 요인 예비항목

분류	요소명	설명
주제	개념	내용을 이해하는데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
	전문 용어	특정 분야에서 쓰이는 기술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용어. 대부분 언어간 대응어가 존재함.
어휘	단어	전문 용어를 제외한 일반적인 어휘 중 사용빈도가 낮거나 고급 어휘로 분류되는 단어.
문장	문장 길이	문장의 물리적인 길이. 한 문장에 포함된 단어 수나 어절 수 등으로 표현될 수 있음.
	문장 구조	문장의 통사적 구성. 복문/중문/단문의 구조, 수식어구, 주어와 동사 간의 거리, 능동태/수동태/명사형의 사용 등으로 인해 문장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음.
	문장 성분 생략	주어, 동사 등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
논리	접속어	문장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의미체로서 문장 간의 관계를 밝힘.
	지시어	두 개의 언어적 표현 간에 존재하는 일치 관계가 파악이 안되거나 어려울 때, 즉 지시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불분명할 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명확성	개별 단어는 이해가 되나 전체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가 불분명한 경우. 중언 부언하는 스타일.
	추상성	실제로나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성질 또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경우.
정보 밀도	정보 밀도	주어진 텍스트 단위(구절, 문장 등) 안에 처리할 정보가 밀집되어 있는 정도.
도착어 표현	은유적 표현	문자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닌 다른 것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
	관용구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단어들의 개별 의미만으로는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없는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구.
	속담 및 격언	오랜 역사적 생활 체험을 통하여 이루어진 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 따위를 간결하게 표현한 짧은 글.
	문화적인 표현	도착어 혹은 도착어 문화 내 에 해당 표현이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가치를 지니는 경우. 전문 용어와는 달리 대응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타	고유명사	인명, 지명, 기업명 등 사람이나 사물의 고유한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숫자	수량 및 그 단위, 날짜, 비율 등 숫자로 제시되는 부분.

[Abstract]

**Source Text Difficulty in Interpreting Training**  
**— Trainers' Perspective —**

Choi, Moonsun  
(Ewha Womans University)

Although source text (ST) difficulty constitutes one of the key criteria for selecting STs for classes and tests in interpreter training, few attempts have been made to explore what makes a given ST difficult for students to interpret and how to assess its difficulty level. The present study, undertaken as part of the author's PhD research, aim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ST difficulty in interpreter training. As implied in the use of the term 'ST', the scope of the study was confined to intra-textual factors, i.e. factors directly attributable textual features. Following literature review and a pilot study, a set of ST difficulty criteria was produced and categorized into a list of six key areas, i.e. topic, general vocabulary, syntax, logic, information density and re-expression in the target language. Based on this result, an experiment with 13 interpreting teachers was conducted where the participants were provided with 10 texts and asked to provide descriptions of the perceived difficulty and ratings of difficulty level on a Likert scale for individual texts. The result shows that 1) interpreting teachers make their judgment of ST difficulty mainly based on topic; and 2) ST's overall difficulty rated by the interpreting teachers are strongly correlated with their perceived degree of topic difficulty.

▶ Key Words: interpreting, interpreting training, source text selection, text difficulty

276 번역학연구 ● 제13권 5호

최문선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강사

moonsun\_choi@hanmail.net

관심분야: 통번역교육, 텍스트분석

논문투고일: 2012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2012년 11월 26일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14일